

재외동포의

창

September 2017



강력한 고대국가임을 밝히는 유력한 증거물 ‘고인돌’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 약 4만기 달해



1. 세계 최대 고인돌 밀집지역인 전라북도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그 자체가 '고인돌 박물관'이다.
2. 고창 고인돌 박물관 상설전시실에는 고인돌을 운반하는 과정과 청동기 시대 생활상, 세계의 고인돌과 거석문화에 대한 내용이 전시돼 있다.

고인돌은 강력한 권력을 지닌 고대 부족국가 지배계층의 무덤 또는 제단이다. 기반식 고인돌에서 비롯된 순우리말인 고인돌은 큰 돌을 받치고 있는 '권돌' 또는 '고임돌'에서 유래했는데, '지석묘'(支石墓)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대개석묘'(大蓋石墓)라고 하며, 영어로 '돌멘'(Dolmen)으로 불린다. 고인돌은 대부분 큰 돌로 만든 무덤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돼 청동기 시대에 주로 만들어지다가 철기 시대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돌은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던 우리의 고대문화를 밝히는 유력한 증거물로 세계에 자랑할만한 유산이다.

한반도에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세계에서 발견된 고인돌 7만여 기 중 남한에 3만여 기, 북한에 1만여 기 등 한반도에 4만여 기가 존재한다. 주로 서해안 지역을 따라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으며 고창을 포함한 호남 지방에서 발견된 것만 2만여 기에 이른다.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은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중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조밀하게 밀집했고 다양한 형식과 크기로 모여 있는 '고인돌 야외박물관'이다.

고창 지역 고인돌 발굴조사는 1965년 국립박물관이 아산면 상갑리 고인돌 3기에 대해 시행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현재까지 총 1천686기가 발견됐다. 그중 아산면 죽림리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 약 1.8km 범위에 있는 447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고창의 고인돌은 숫자뿐만 아니라 형태도 다양하다. 탁자식과 변형 탁자식, 기반식(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고인돌이 해발 15~65m 등고선을 따라 열 지어 있어 '거석문화의 보고'로 불린다. 고인돌 유적지 앞으로는 고창천이 흘러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을 이룬다.

화순 고인돌 유적은 약 10km에 걸쳐 596기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어 집중 분포하고 있고 최근에 발견되어 보존상태가 좋다. 강화도에는 고려산 기슭을 따라 16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고 이곳에는 길이 6.399m, 높이 2.454m의 우리나라 최대의 탁자식 고인돌이 있다. [창](#)



CONTENTS

2017. 09



- 02 한국의 얼 강력한 고대국가임을 밝히는 유력한 증거물 ‘고인돌’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 약 4만기 달해
- 04 특집 고려인·재일동포 초등생 170명 모국서 우리말 배우며 ‘정체성 찾기’
서울과 지방에서 문화체험·한국어 집중캠프 참여
- 06 화제 1 전 세계 29개국 한글학교 교장 54명 초청 모국연수
교직 소양·정체성 교육 집중, “차세대 육성 매진” 다짐
- 07 화제 2 재외동포 대학생 160명 모국연수 통해 정체성 함양
서울·파주·무주·전주 등 오가며 모국을 배우다
- 08 화제 3 文대통령 “모든 것 걸고 한반도 전쟁 막겠다”
광복절 경축사...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어”
- 10 기획 흠어져 살던 고려인 찾아내 한 식구처럼 지내는 조지아 한인사회
한인회 가입시키고 각종 행사 초대... 자녀에게 장학금도 지급
- 12 글로벌 코리안 민주평통 해외 첫 여성 부의장, 호주 동포 이숙진 씨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IT 비즈니스로 성공한 최승업 사장
홍콩·중국서 스마트폰 카메라 제조장비 사업으로 성공한 강기석 씨
- 14 동포소식 ‘재외동포 배제’ 고려인·중국동포 4세 국내체류 한시허용 외
- 17 동포 캘린더 美 한인 시의원 등 21명, 트럼프에 ‘파국 치달지 말라’ 서한 외
- 18 유공동포 재미동포 첫 백만장자이자 독립운동가 김종림
한인 비행학교 설립에 기여... 쌀농사로 큰돈 번 ‘쌀의 왕’
- 19 주목! 차세대 중남미 최빈국 아이티에 한글학교 세운 남하얀 씨
의료봉사·선교 위해 이주... “한민족 정체성 심어주는 게 목표”
- 20 지구촌 통신원 ‘인천서 14시간’... 한중 최초 카페리길 웨이하이를 가다
수교 2년 전인 1990년 9월부터 인천과 정기 카페리 운항
- 21 한민족 공감 독립운동의 요람... 연해주 ‘신한촌’의 어제와 오늘
고려인 제2의 고향... 1937년까지 번성하다 흔적 사라져
- 23 OKF 뉴스 재외동포문화상 단편소설 부문 대상에 이권재 ‘아버지의 초원’ 외
- 24 고향의 맛·멋 담백하고 시원한 전통서민음식 ‘평양냉면’
겨울철 이북음식에서 사계절 전국 음식으로 진화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2017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 참가한 19개국에서 온 150여 명의 대학생 및 예비대학생은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7박 8일간 서울과 전라북도를 오가며 모국을 체험했다.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독자를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려인·재일동포 초등생 170명 모국서 우리말 배우며 ‘정체성 찾기’

서울과 지방에서 문화체험·한국어 집중캠프 참여



1



2



3

1. 고려인 청소년 73명이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인 ‘한국어 골든벨’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답을 맞히고 있다.
2. 고려인 초등생들이 전주전통문화원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다도 예절을 배우고 있다.
3. ‘한국어 집중캠프’에 참가한 고려인 청소년들이 전통문화 체험의 하나로 탈춤을 배우고 있다.

한국어 배우며 모국 문화에 흠뻑 젖다

고려인 중앙아시아 이주 80주년을 맞이해 CIS 지역 고려인 초등학생 80명이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재외동포재단은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9박 10일간 서울과 전라북도를 오가며 ‘고려인 청소년 초청 한국어 집중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는 재외동포 역사가 깊어지면서 한국어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고려인 동포 4·5세대들의 한국어 능력 배양과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사로, CIS 지역 4개국 초등학생 73명과 현지 인솔교사 11명 등 총 84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한국어 관련 수업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재단은 참가자들이 거주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현지 한글학교와 연계해 한국어 학습 지도 등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캠프는 한국어 수업, 문화체험, 체육대회, 그룹 프로젝트 등 놀이와 활동을 통해 실용 한국어를 습득하고 더불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는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17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개막식에 참가한 후, 18일 전라북도 전주시로 이동해 한지공예와 한옥 체험, 장치기, 장명루 만들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을 방문해서는 유생 의복 입기, 다도 등 전통문화를 배우기도 했다.

또, 체육대회와 쿠키·아이스크림, 토피어리 등 체험부스, SME타운 방문, 한글 골든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국을 체험하고 한국어를 배웠다.

21일에는 올림픽파크텔에서 노래와 춤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수업을 진행했다.

흥난파 작곡의 동요 ‘고향의 봄’을 배운 김라다(12·키르기스스탄) 양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성악을 배우는 시간에 이 노래를 배운 적이 있는데 모국에서 제대로 배우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활쏘기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김 알비나(13·카자흐스탄) 양은 “한국 사극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활을 쏘는 장면을 보며 부러워했는데 이번에 한복을 입고 활을 쏘보니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너무 신났다”고 즐거워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민 역사가 오래돼 한국어 교육이 단절된 상황에서 성장한 고려인·재일동포 자녀를 초청해 정체성을 심어주는 행사를 열었다. 170여 명의 초등학생들은 재단이 마련한 '한국어 집중캠프'를 통해 모국의 말을 배우고 문화 체험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했다.



재일동포 초등생과 인솔교사 등 90여 명은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울과 전주 등을 오가며 한국 문화 체험에 참가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참가자들은 “높은 빌딩이 인상적이다. 산과 나무도 많은데다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을 더 알기 위해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겠다는 김 아델리아(10·키르기스스탄) 양은 “통역사가 돼 우리말을 읽고 사는 고려인과 한국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 고려인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 동포 청소년에 비해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말 교육이 한민족 정체성 형성의 시작인만큼 앞으로도 모국방문을 통한 한국어 교육과 정체성 함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일 청소년 “우리말 배우니 유대감 더 생겨”

재단은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2주간 ‘재일동포 청소년 초청 한국어 집중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어 교육이 단절된 환경에서 성장한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모국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한인

정체성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처음 진행하는 행사로, 재일동포 초등학생 82명과 인솔교사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에 위치한 경인고대에서 수준별 한국어 집중 수업을 듣고, K-POP 커버댄스와 태권도, 부채춤, 한글서예 등 8개의 ‘한국 문화 교실’에 참가했다. 또한, 2박 3일의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를 방문, 한옥숙박체험과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인솔교사로 참가한 이은숙 교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온전히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한 이 시간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한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고, 향후 한국어 학습을 이어나가기 위한 동기부여의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외동포 이주역사가 150년을 넘어가고 현지 출생자가 동포사회의 다수를 형성하면서 모국과 동포사회를 잇는 연결 고리로 한글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스스로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 세계 29개국 한글학교 교장 54명 초청 모국연수

교직 소양 · 정체성 교육 집중, “차세대 육성 매진” 다짐

재외동포재단 주최 ‘2017 한글학교 교장 연수’ 참가자들은 8월 25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수료식을 갖고 앞으로 차세대 육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로 다짐했다.

8월 2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열린 이번 연수에는 29개국에서 54명의 한글학교 교장이 참여했다.

‘한글학교가 우리 민족을 이어줍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글학교 교장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학교 경영자로서의 교육철학을 세우기 위한 ‘교직 소양’,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체성 교육’과 함께, ‘한국사 강의’와 ‘한지 공예’ 등 역사 강의와 문화 체험에 참여했다.

또한 정체성 교육을 위해 ‘영화를 통해 보는 대한민국 현대사’ 수업도 들었다.

22일에는 ‘교육철학 세우기’,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등 한글학교 관리자로서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고, 학교기록 관리법, 학생들과의 의사소통법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 교육을 받았다.

23일에는 한글학교 교사인증제와 정보공시시스템, 맞춤형 사업 등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운영 및 지원정책과 온라인 학습사이트인 ‘스터디코리안’ 활용법과 교사인증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4일에는 참가자들이 한 데 모여 한글학교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자리에서 향후 전개할 캠페인의 주제를 ‘배우GO! 느끼GO! 나를 찾GO!’로 정했다. 구체적 활동으로 문화·역사 교육 강화, 모국 방문·연수 활성화 등으로 정하고 이를 전 세계 한글학교로 확산할 방침이다.



1. 재외동포재단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29개국 54명의 한글학교 교장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2. 연수에 참가한 교장단은 8월 24일 한글학교 운영 노하우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기위한 '네트워크의 밤'에 참여했다.

교장들은 수료식에서 ‘차세대 모국 연수 확대’, ‘전문강사 현지파견 증원’, ‘동포사회 특성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문도 발표했다.

주철기 이사장은 “차세대의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는 한글학교는 동포사회의 근간”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여러분을 격려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1천800여 곳의 한글학교에서는 10만 여명의 학생들이 우리말과 글을 배우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고 있고, 재단은 이들 학교를 돕기 위해 운영비 지원, 교사 및 교장 초청연수, 교육 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한정**

재외동포 대학생 160명 모국연수 통해 정체성 함양

서울·파주·무주·전주 등 오가며 모국을 배우다



1



2

1.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를 위해 국내외 160여 명의 학생들이 8월 4일 전북 무주의 국립태권도원에서 태권도를 배웠다.
2. 8월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기념해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3일에는 파주 임진각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대한민국 분단의 역사를 배우고 평화 통일을 염원했다. 이어 전라북도로 이동한 참가 학생들은 무주의 국립태권도원, 진안 농촌마을, 전주 한옥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모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약 20여 개의 단체들과 함께 진행된 세계 인도주의의 날 공동캠페인 기념행사에 참여해 아리랑 퍼포먼스 플래시몹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2003년 바그다드 국제연합(UN) 본부에서 발생한 테러로 사망한 인도주의 활동가 22명과 수백 명의 부상자들을 기리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날이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아리랑 노래에 맞춰 '재외동포 대학생 인도주의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실천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이어 7일에는 '한반도 통일, 동북아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세계한인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우선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이어서 나라별 수석대표가 평화적인 논의 및 협상을 통해 결의안을 도출하는 모의 6자 회담을 열었다. 토론회 이후 폐회식을 끝으로 모국연수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철기 이사장은 "미래의 재외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여길 수 있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모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배우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재외동포 대학생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재외동포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한인 차세대들의 정체성 확립과 강화를 위해 동포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17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에는 19개국에서 온 150여 명의 대학생 및 예비대학생이 참가해 모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7박 8일간 서울과 전라북도를 오가며 모국을 체험했다. 재단은 매년 여름마다 재외동포 대학생들의 모국 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첫 날인 1일에는 입소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함께 참가한 또래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공식 일정은 2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진행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文대통령 “모든 것 걸고 한반도 전쟁 막겠다”

광복절 경축사…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과 미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군사행동의 최종 결정권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전쟁 절대 불가’를 확실하게 못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운전대론(論)’을 재차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 상호이행을 약속하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게 국회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거론하며 “남북 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할 것”이라며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년”... ‘건국절 논란’ 종지부

문 대통령은 이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지난 백 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 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백 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국적 불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일동포의 고향 방문 정상화할 것”

한일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해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다. 그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운동 공적을 후손들이 기릴 수 있도록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며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참]**

1.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상길 애국지사, 박유철 광복회장, 문 대통령, 김 여사,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인우, 최장섭 할아버지
3.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인 8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



3

흠어져 살던 고려인 찾아내 한 식구처럼 지내는 조지아 한인사회

한인회 가입시키고 각종 행사 초대... 자녀에게 장학금도 지급



1

1. 트빌리시의 벼룩시장. 이광복 한인회장은 이곳에서 좌판을 펴고 공구 장사를 하던 고려인 반철수 씨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2.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자유광장'. 2003년 11월 부정부패와 연루된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대통령 정권을 퇴진시킨 '장미혁명'이 성공한 장소로, 레닌광장이라는 이름을 자유광장으로 바꿨다.



2

조지아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유럽과 아시아 경계에 있다. 소비에트연방 붕괴 후 1991년 4월 독립했다. 캅카스(코카서스) 산맥에 자리 잡고 있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캅카스 3국으로 불린다. 면적은 한반도의 약 3분의 1 정도이고 인구는 약 500만 명, 국민소득은 작년 기준 약 3천850 달러 수준이다. 터키, 러시아와도 국경을 접해 물류, 중계무역업과 관광이 경제발전의 주축이다.

조지아의 국가명은 그루지야였으나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지역 분쟁을 둘러싸고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후 영어식 발음인 조지아로 바꿨다. 소련의 독재자로 악명높은 스탈린이 이곳 출신이다.

한국과 조지아 양국은 올해로 외교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았다. 조지아에 거주하는 한인은 120여 명. 2003년 조지아에 첫발을 디딘 한인 1호는 이광복(49) 현

한인회장이다. 한국에서 종합무역회사에 근무하던 중 중동 지역의 탄피 수거 사업 특수를 겨냥해 조지아에 '개런티메탈'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정착했다. 비철금속 사업을 하는 그는 초대 한인회장에 이어 3~5대 회장을 연이어 맡고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조지아 거주 한인은 자신과 한국학 중앙연구소에서 파견한 현지 자유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미군 장성 출신 군사고문관의 부인 등 세 가정이 전부였다고 한다.

현재 한인의 대다수는 선교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지상사 직원, 여행사와 개인사업 종사자들이다. 고려인도 다섯 가정이 거주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05년 수도 트빌리시의 상설 벼룩시장에서 고려인을 우연히 만났다고 밝혔다. "당시 한인이 몇 가족밖에 살지 않던 시절에 생김새가 우리와 똑 닮은 사람이 볼트, 너트 등 공구를 팔고



3



4



5



6



7

3. 조지아 거주 고려인 2세인 반철수(68·왼쪽), 김스베틀라나(72)씨. 오른쪽은 이광복 한인회장. 작년 고려인 네트워크 행사 때 찍은 사진.
4. 작년 추석 때 교민과 고려인이 만찬 후 함께 찍은 사진.
5. 고려인과 함께하는 추석행사.
6. 교민체육대회.
7. 올해 6월에 있었던 제2회 K-Pop 예선전.

있어서 아는 체했는데 알고 보니 고려인이었어요. 우리말을 잊었다고 해 조지아어로 대화를 나눴는데 이름이 반철수라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건너온 고려인 2세였죠. 그를 통해 고려인 존재를 알게 된 후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15명을 찾았습니다.” 이 회장은 한인회에 고려인을 가입시키고 각종 행사에 초청하기 시작했다. 또 고려인 자녀들에게는 한인회가 모금해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고려인은 구(舊)소련 시절 조지아에서 군 복무를 했다가 제대 후 눌러앉았거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조지아 인을 만나 결혼해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백인이 대부분인 조지아에서 차별을 받으며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가난하게 살아왔다.

조지아 한인 가운데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 있다. 양태규(82) 전 대사가 주인공이다. 코트디부아르 대사와 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를 지낸 그는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8년 전 조지아에 정착, 와인을 만드는 일로 만년을 바쁘게 살고 있다. 조지아는 와인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양 전 대사는 현지 전통 와인 제조방식을 현지인보다 더 철저히 지키며 땅에 묻은 황토 도기에 와인을 빔어내고 있다.


조지아 한인회는 2006년 말 결성되었고 송년 정기총회, 신년모임, 불링대회 겸 소풍, K-Pop 조지아 예선, 고려인과 함께하는 추석 한가위 행사, 5회째 이어오고 있는 독도 한국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12년 처음 실시된 한국 대선 재외국민투표 때는 이광복 한인회장 등 한인 9명이 12인승 승합차를 타고 트빌리시에서 육로로

1천350km 떨어진 터키 주재 한국대사관 투표소까지 찾아가 한 표를 행사하는 열성을 보였다.

한인사회가 소규모이지만 교민과 고려인 자녀의 한글교육과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트빌리시와 지방 도시 마르네울리 두 곳에 주말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현지인들에게 한국인은 전쟁 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부지런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은 가격보다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삼성 휴대폰은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고 현대·기아차도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한류’ 바람은 이곳도 예외가 아니다. 2년 전 ‘주몽’이 방송된 후 한국 드라마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고 젊은층 사이에서 K-Pop과 스타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 어린 학생도 많다.

조지아는 소련 지배로부터 독립한 후 내전으로 인해 10년 이상 정치 사회적, 경제적 암흑기를 보내야 했다. 외국인인 경호원 없이는 외출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2003년 11월 현 대통령 미하일 사카슈빌리가 이끈 무혈 ‘장미혁명’이 성공해 국가발전의 길로 들어섰다.

지금의 조지아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천지개벽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구소련 독립국들 가운데 모든 면에서 가장 개방화된 나라로 꼽힌다. 한인회 이 회장은 “요즘 한국 내에서 조지아 전역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어 앞으로 이곳에서 사업을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북정책 공감대 확산 주력... “민주평통 역할 젊은 세대에 알려줄터”

민주평통 해외 첫 여성 부의장, 호주 동포 **이숙진** 씨



9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구인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부의장에 이숙진(56) 전 호주협의회장이 임명됐다. 민주평통 부의장에 해외지역 여성이 임명되기는 처음이다.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을 포함해 국내 15명, 해외 5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이 부의장은 호주·뉴질랜드 등 대양주와 서남아, 동남아 남부와 북부, 서부, 중앙아시아 지역의 7개 협의회 소속 638명의 자문위원을 대표한다.

이 부의장은 젊은 세대 중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역할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제11기 때인 2003년 민주평통에 발을 들여놓은 뒤 제16~17기 호주협의회장을 지내면서 펼쳤던 경험을 전수하려는 것이다. 2014년 모범적인 활동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이 부의장은 사업하면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대양주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그는 ‘개방 = 인권 = 통일’이라는 등식을 믿고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맥컴 턴볼 연방 총리, 필립 러독 하원의원, 줄리 비숍 외교부 장관,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언(여)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총리, 주 정부 장관과 주 의회 의원 등과는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라고 한다.

호주 연방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채택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했고, 주호한국대사관과 주시드니총영사관의 후원 아래 ‘북한 인권 주간’ 행사를 열어왔다. 시드니, 퍼스, 멜버른, 브리즈번 등을 돌며 영화제를 비롯해 전시회,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뉴질랜드를 포함해 400여 개 관리매장에 직원 2천여 명을 거느린 청소용역업체 제마이홀딩스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18세 때 부모를 따라 호주로 건너간 뒤 부친 이재경 회장을 도와 제마이홀딩스그룹을 한인 최대 기업으로 키웠다.

“이곳엔 할 일 무궁무진... 한국 청년들 뛰어놀 큰 운동장 있다”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IT 비즈니스로 성공한 **최승업** 사장

최승업(41) 나나텔레콤 사장은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가장 성공한 한인 기업인으로 꼽힌다. 나나텔레콤은 연 68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가나 1위 통신사 MTN의 최대 파트너 회사로 탄탄한 소매·유통망을 갖췄다. 가나 전역에 28개 직영 대리점을 두고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선불카드와 전화기 판매, MTN 고객 서비스 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친다.

최 사장은 14살 때 강원도 춘천에서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 정착한 1.5세 경영인이다. 현지 중학교와 국제고를 거쳐 가나국립대 경영학과 입학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의 디지털프린팅을 현지에 보급했고, 졸업할 무렵인 2004년 레바논 출신의 MTN 부사장을 만나면서 통신업계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가나에는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한국의 어떤 기업이든 지금 오면 금융시장에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는데…”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국 기업이 오면 자연스럽게 한국인 직원도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제가 플랫폼을 구축해놨어요. 한국 청년들이 오면 마음 놓고 뛰어놀 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청년 개발자들이 들어온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큼니다.”

그는 가나의 휴대폰 보급률(120%)은 한국인이 취·창업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변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한 사람이 휴대폰 2대씩 소유한 경우도 있어 3천만 대를 넘겼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포털도, 애플리케이션도, 온라인 쇼핑도 그 어느 것 하나 구축된 것이 없다. 게다가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아서 영어가 통용되는 곳이다. 최 사장은 “한국의 휴대폰 관련 비즈니스를 이곳(가나)에 접목하면 모든 것이 돈이 된다. 이런 시장에 왜 안 뛰어드느냐”며 한국 청년들의 현지 진출을 거듭 권유했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세계인과 소통할 언어 익히는 게 중요”

홍콩 · 중국서 스마트폰 카메라 제조장비 사업으로 성공한 **강기석** 씨

강기석(55) 레이저발아시아 · 레이저발차이나 대표는 스마트폰 카메라 제조장비를 홍콩과 중국에서 제조해 전 세계 시장에 유통한다. 강 대표는 8월 11일 “이 장비의 세계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다”며 “삼성, 애플 등에 모듈을 제작해 납품하는 업체가 우리의 고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갈수록 정밀화를 요구하기에 시장은 확대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전자부품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한가지 아이템으로 한우물을 판 덕분에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을 일궈냈다. 1988년 호주 유학을 떠났다가 3년 뒤 귀국한 그는 지인의 소개로 일본에 건너가 레이저 장비업체에서 일하면서 이 분야와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일본말도 못하고, 레이저에 대해 전혀 몰라 고생을 많이 했지요. 글로벌 마케팅을 하면서 기술을 체득했고, 나중에는 회사 경영자(CEO)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그만두고 홍콩으로 왔지요.” 2003년 홍콩에 첫발을 디딜 당시 그곳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사태에 휩싸였다. 이탈리아에서 기술 전수를 위해 오기로 했던 엔지니어가 공항에서 돌아가는 일도 터졌다. 6개월을 아무 일도 못 하다 결국 의사 진단서를 보여주고 설득한 끝에 이탈리아 엔지니어를 홍콩으로 초청해 트레이닝을 받았다. 이듬해 직원 2명과 함께 자체개발한 레이저 장비인 ‘마이크로 젯 솔더링’을 생산하는 ‘레이저발아시아’를 차렸다. “지금은 직원만 100명이 넘습니다. 중국 선전에 공장을 냈고요. 가끔 엔지니어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 애를 먹기도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 세계 레이저 장비 시장은 1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기업 경영의 제1조건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을 누비기 위해서는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익힐 것을 주문했다. **창**

‘재외동포 배제’ 고려인·중국동포 4세 국내체류 한시허용

정부는 9월 12일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시행령은 출입국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로까지만 규정하고 있다.

고려인이나 중국동포 가운데 4세대 이상으로 성인이 된 이들은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정주하고 있어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지 못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본국과 우리나라를 오갈



고려인들은 4세대의 모국 거주를 위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고려인특별법 개정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4세대 이후 동포를 재외동포법에 포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학업 등의 중단이 없도록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시적 구제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방문동거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구제 조치에 따라 당장 올해 출국해야 하는 4세대 성인 동포 17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8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 러시아, CIS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출신인 4세 이상 동포 2만7천560명이 머무르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日 히로시마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 열려

2차대전 당시 강제연행 등으로 일본에 끌려와 히로시마(廣島) 원폭 투하로 희생된 한국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가 8월 5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주히로시마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년을 하루 앞두고 평화기념공원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는 서장은 총영사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서장은 총영사는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별도 위령제가 올해로 48회째 계속되고 있다”며 “여기 모인 동포들과 일본 각계각층의 뜻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무기의 공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2차 대전 당시 강제연행 등으로 일본에 끌려와 히로시마(廣島) 원폭 투하로 희생된 한국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가 8월 5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렸다.

말했다. 오공태 민단 중앙단장은 “세계 122개국이 찬성해 결정한 핵무기 금지조약에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길 희망한다”며 “민단도 핵무기 철폐와 한일 간 우호 친선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히로시마평화공원에는 지난 1년간 숨진 11명의 피폭자를 포함해 총 2천734명의 한국인 피폭 희생자 명부가 봉납됐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1970년에

건립됐다. 민단 히로시마본부측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2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위령제에 이어 히로시마 시내 한 호텔에서는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주최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도회도 열렸다.

재미동포들, 허리케인 '하비' 한인 수재민 돕기 나섰다

재미동포들이 텍사스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피해를 본 한인 수재민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만 명 규모인 휴스턴 한인사회에서는 '하비'로 인해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LA 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8월 28일부터 성금 모금을 시작해 이틀간 3천 달러를 모았다고 밝혔다. 익명의 60대 한인 할머니 두 명이 각각 500달러를 내놓으며 모금 운동에 불을 지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모금에 앞서 1천 달러를 휴스턴 한인회(회장 김기훈)에 긴급 전달했다.

홍명기 M&L홍 재단 이사장과 차민영 서울메디컬그룹 대표는 미주한국일보와 라디오서울이 미국 적십자사와 함께 전개하는 모금 운동에 각각 1만 달러와 3천 달러를 쾌척했다.



미국 텍사스 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여파. 블룸버그 통신은 '하비'로 인한 경제피해는 정확히 집계할 수 없지만, 최저 300억 달러에서 최대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회, 한인교회협의회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는 이사회를 열어 수재민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고, 뉴저지한인회(회장 박은림)도 휴스턴한인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한인들에게 지원할 구호품과 성금을 접수 중이다.

지난해 에콰도르 지진 피해자들 돕기에도 나섰던 뉴욕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와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국)는 이번에도 앞장서 한인 수재민이 이른 시일 내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휴스턴 한인회장은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재미동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미국 시애틀의 한인 IT 전문가들, 네트워크 결성

미국 시애틀 한인 IT(정보기술)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름은 '창의와 발명(창발)'이다. 소규모 친목 모임으로 시작한 창발은 지난해 10월 첫 콘퍼런스를 하면서 활동을 본격화했다. 현재 페이스북 계정에 등록된 회원 수만 약 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매달 정기 세미나에도 50명가량이 참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회원 김동찬(34·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 개발팀 엔지니어) 씨는 "이전에 아마존에 근무할 때 어떤 부서에 중국 사람이 팀장으로 오면 그 부서 전체가 중국인들로 바뀐 적도 있다"며 "그러나 한국인이 팀장으로 오면 오히려 한국 사람을 꺼리고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찬희(37·아마존



미국 시애틀 한인 IT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 '창의와 발명'이 지난 7월 개최한 세미나.

상품매니저) 회장은 "자질이 충분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팀원으로 뽑아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이곳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IT 기업들 가운데 인도와 중국인의 비중이 많은 것도 이들이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는 네트워킹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MBA 출신인 이 회장은 "실리콘 벨리에는 'K 그룹'과 같은 한인 테크인들의 모임이 여러 개가 있지만, 시애틀에는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면서 "대학생들과 젊은 테크계 지원자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한국의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을 도와 한인 테크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독립 처음 천명한 '카이로선언' 기념장소에서 광복절 행사

이집트한인회는 8월 15일 수도 카이로 외곽 기자 주(州)에 있는 메나하우스 호텔 정원에서 광복절 72주년 기념식과 오찬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집트 교민과 윤순구 한국대사 등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직원, 카이로 한국학교 교직원·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애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이어졌다.

기자 주의 유명 관광명소인 대피라미드 앞에 있는 메나하우스는 1943년 일제 식민지 상태에 있던 한국의 독립을 미국과 영국, 중국 정상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천명한 '카이로선언' 실무회담이 열린 곳이다. 이 호텔 정원에는 이를 기념하는 기념석이 세워져 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외곽 기자 주(州)에 있는 메나하우스 호텔 정원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기념식에서 한국 교민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카이로선언은 한국에 대한 특별 조항을 넣어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해 한국의 독립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보장을 받았다. 5일간에 걸친 회담에는 루스벨트 미 대통령, 처칠 영국 총리,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이 대표로 참가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다.

남진석 이집트한인회장은 "카이로 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과 이집트 양국 간 교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이곳에서 광복절 행사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집트한인회는 지난해부터 메나하우스 호텔에서 광복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미 한류의 거점' 브라질 상파울루서 다채로운 한국문화 행사


남미대륙에서 한류의 중심지로 꼽히는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잇달아 마련됐다. 8월 12일 상파울루 시내 한인타운 봉헤치루 지역에서 브라질 한인회(회장 김요진)가 주관하는 제11회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다. 올해부터는 상파울루 시의 공식 문화행사로 포함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방문도 예년보다 많이 늘었다. 앞서 상파울루 시의회는 2010년 1월 봉헤치루 지역을 한인타운으로 지정했고, 상파울루 시 정부는 올해부터 8월 15일을 '한국문화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8월 13일까지 이틀간 계속된 '한국문화의 날' 행사에서는 케이팝(K-Pop)·전통무용·비보이 공연과 사물놀이, 태권도



8월 12일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한인타운 봉헤치루 지역에서 제11회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다.

시범, 어머니·어린이 합창 등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가 선보였다. 특히 첫날에는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어가행렬이 펼쳐졌다. 사물놀이 팀이 선두에서 어가행렬을 이끄는 가운데 포졸·취타·장군·가마·궁녀 등이 뒤를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8월 15일에는 브라질 한국문화원과 서울 세종문화회관(대표 이승엽) 주관으로 상파울루 시립극장에서

한국문화의 날 공식 지정과 서울-상파울루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시 청소년국악단(단장 유경화)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에는 각국 외교단과 브라질 문화·예술계 인사, 현지 진출 우리 기업, 한인 동포 등 1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美 한인 시의원 등 21명,
 트럼프에 '파국 치닫지 말라' 서한**

재미 한인 동포 정치인·공직자 21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극한 대치 상황을 더는 악화시키지 말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8월 11일 보냈다. 헬렌 김 필라델피아 시 광역의원,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피터 권 워싱턴 주 시의원, 샘 박 조지아 주 하원의원, 데이비드 류 LA 4지구 시의원, 실비아 루크 장 하와이 주 하원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재단의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가자다.



사할린 한인 위한 '우리 달력' 후원 동참하세요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18' 제작 모금운동을 시작한다고 8월 10일 밝혔다. KIN은 일본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끌려가 살아남은 1세와 그 후손을 위해 2013년부터 음력, 명절, 한국 국경일 등이 표기된 '우리달력'을 만들어 배포해왔다. 달력 제작 후원은 온라인 모금 사이트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42790>)나 KIN의 계좌(우리은행 1006-301-227783)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8월 30일 개막...
 120개국 200명 참가**

제17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군산시 새만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전라북도도와 군산시가 공동개최한 이번 대회는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역할, KOWIN 미래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재외 한인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120개국 주재 공관의 추천을 받은 200여 명의 여성 리더와 차세대, 국내 여성 단체장과 직능단체장, 여성인재 아카데미 추천자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美 메릴랜드 한인들
 "한국사위" 호건을 다시 주지사로"**

미국 메릴랜드 주 한인사회가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재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현지 한인들은 '래리 호건 재선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8월 13일 이세희 리앤리 재단 회장 자택에서 제1차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 회장은 "후원 행사에는 한인 기업인과 한인 단체장을 비롯해 주류 정·재계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며 "후원금은 7만 달러 정도가 모금됐다"고 전했다. 주지사 선거는 내년 11월 치러진다.



美 남부 '소녀상' 도시 브룩헤이븐서 한인 의원 재선

일본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미국 남부에서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 인근 소도시 브룩헤이븐에서 소녀상 건립에 힘써오며 재단이 주최한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도 참가했던 존 박(한국명 박현중) 시의원이 재선했다. 8월 25일 현지 한인 매체에 따르면 존 박 시의원은 브룩헤이븐 시의원 입후보 마감시한까지 제2지구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이 확정됐다. 박 시의원은 후원금을 모아준 한인사회에 감사를 표한 뒤 주 하원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월드옥타 아시아대표자대회 호찌민서 열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주최하는 '2017 아시아 대표자대회'가 8월 10일 베트남 호찌민의 롯데 레전드 호텔에서 열렸다. 월드옥타 호찌민지회(지회장 김태곤) 주관으로 열린 이 대회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회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소통의 장이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돕는 자리로, 2015년 필리핀 마닐라를 시작으로 태국 방콕에 이어 3번째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지역 14개국 월드옥타 지회장과 간부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재미동포 첫 백만장자이자 독립운동가 김종림

김종림(金宗林, 1884~1973)은 함경도 원산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재미동포 최초의 백만장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23살 때인 1907년 1월 앨리미다 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철도 노동자로 일하다가 캘리포니아 주로 이주했다. 1912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쌀농사를 시작, 곧이어 벌어진 1차 세계대전을 기회로 삼아 큰돈을 벌며 '쌀의 왕'(Rice King)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설, 함경도 대표로 참여했고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 공립신보와 신한민보 인쇄인을 맡기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위해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월로우스에 비행학교를 설립, 조종사를 양성하려 할 때 3만 달러로 비행기 2대를 구입하고 비행장 건축과 연료 구입비, 교관 초빙비용을 냈다. 비록 1년여 만에 비행학교가 문을 닫았지만 월 로 우 스 비 행 학 교 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운 최초의 비행학교로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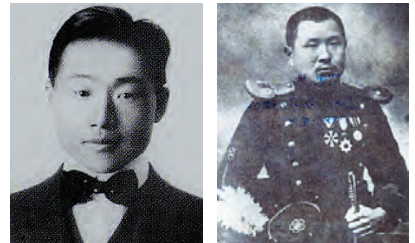
고인은 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해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환갑을 앞둔 나이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에 입대했고 그의 두 아들도 미 해군에 입대해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운 것으로 알려졌다. 큰아들 김진원 씨는 알류산 열도에서 통신부사관으로 복무했고, 작은아들 김두원 씨는 해군 상륙정 승무원으로 필리핀 해역에서 교전을 치른 후 미국이 승리하자 점령군으로 일본에 진주, 아버지와 두 아들이 모두 군인이 돼 일본과 싸웠다.

도산 생전에 그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후원자이며 동지였던 김종림은 1946년 동지회 북미총회 제5차 연례 대표회 의장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세웠던 '월로우스 비행학교·비행대' 부지. 이곳을 '미국역사기념물'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
한인 비행학교 설립에 기여...
쌀농사로 큰돈 번 '쌀의 왕'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월로우스 한인 비행학교 설립에 기여한 '쌀의 왕' 김종림 (왼쪽)과 이 비행학교 책임자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

말을 정도로 이승만과도 가까운 관계였다. 그는 재미동포 사회에서 지도자 위치를 유지했다.

김종림은 쌀농사 사업이 타격을 입은 뒤, 비행학교 재건을 위해 분투했지만,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지 못한 채,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평생 철저히 침묵을 지키, 자녀들조차 아버지의 업적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정부는 그가 타계한 지 32년 만인 2005년 그의 독립운동 업적을 인정하고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중남미 최빈국 아이티에 한글학교 세운 남하얀 씨

중남미 최빈국으로 도미니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는 100여 명의 한인이 거주한다. 이곳에도 한인 차세대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남하얀(33·여) 교장이 지난해 설립한 '나래한글학교'다.

재외동포재단 주최 '2017 한글학교 교장연수'에 참여한 남교장은 8월 25일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가르쳐 한민족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제일 큰 목표"라며 "학부모들이 학교가 생겨 한시를 낫다고 반긴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 문을 연 이 학교는 유아·초등·중고등 등 3개 반 15명의 학생을 3명의 교사가 가르친다. 기독교단체인 '함께하는 사랑밭'이 제공하는 사무실을 활용해 매주 토요일에 수업을 연다. 그는 "학교가 문을 열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교재·책걸상·칠판 등을 마련했고 지금은 학생들 교복까지 맞춰 입는다"고 소개했다.

20살에 남미 파라과이로 유학 가서 현지 의대를 마치고 치과의사로 5년간 근무했던 그는 2015년 선교단체로부터 의료봉사와 선교를 함께 하는 전문선교사에 임명돼 2015년 아이티로 이주했다. 의대 동문 치과의사인 남편도 선교사로 두 사람은 평상시에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무료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나래한글학교'를 설립한 남하얀(33) 교장.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잘 나가던 치과의사 부부가 아이티로 건너온 이유를 물었더니 "의술로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싶은 꿈이 있었다. 의료혜택을 잘 못 받는 어려운 지역을 희망해 아이티로 오게 됐다"고 답했다.

파라과이 한국교육원에서 4년간 한국어 교사로 봉사해온 그는 아이티에 오자마자 한글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아이티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선교사 가족이거나 NGO 관계자들인데 이들이 더 많이 아이티로 오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학교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자녀들이 국제학교와 현지 학교에 다니는데 한국을 모르고 크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다"며 "말과 얼을 심어주기 위해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인사예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모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어른에게 존댓말로 인사하는 등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는 한인사회 사랑방 역할도 한다. 봄·가을 소풍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배운 것이 제일 큰 성과라는 그는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맡길 수 있는 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교육의 전문화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의료봉사·선교 위해 이주...
“한민족 정체성 심어주는 게 목표”

‘인천서 14시간’ ... 한중 최초 카페리길 웨이하이를 가다



한·중 최초 카페리 항로 개설로 급성장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시 전경(좌). 1990년 9월 한·중 양국 간 최초로 개설된 인천~웨이하이 카페리 항로를 운항했던 골든브릿지호의 모습.

한중수교 25주년(8월 24일)을 일주일 앞둔 8월 17일 오전,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시 국제여객터미널은 막 배에서 내린 수백 명의 승객과 화물을 옮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장비들로 활기가 넘쳤다. 전날 저녁 인천항을 출발한 2만 6천 t급 카페리선 뉴골든브릿지2호는 14시간 서해를 가로질러 도착한 산둥반도 끝자락에 480명의 승객과 각종 원자재·

수출품이 든 컨테이너 180개를 쏟아냈다.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승객이 급감한 다른 한중 카페리 항로와 달리 중국 소상공인이 많이 타는 인천~웨이하이 항로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분위기다.

웨이하이 시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의 항구도시다. 1990년대 초반 해도 인구 20만 명의 어촌이었던 이곳은 한국과 뱃길이 열린 뒤 인구 28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급성장하는 ‘기적’을 이뤘다. 2015년에는 인천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범도시로 지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상전벽해’의 현장으로 꼽히는 웨이하이 변신의 물꼬를 튼 것은 한중 카페리였다.

한중수교 2년 전인 1990년 9월 15일 오후 5시 승객 130여

“

수교 2년 전인
1990년 9월부터
인천과 정기 카페리 운항

”

명을 태운 카페리선 골든브릿지호가 인천항을 떠난 지 17시간 만에 웨이하이에 도착했다. 중국에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1949년 이후 단절됐던 서해 뱃길이 41년 만에 다시 이어진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1992년 인천~텐진(天津) 항로를 비롯해 한중 카페리 항로가 추가로 개설됐고, 현재 인천항에서만 단둥(丹東)·옌타이(煙臺)·다렌(大連)·

스다오(石島)·잉커우(營口)·칭다오(靑島)·렌윈강(連雲港)·친황다오(秦皇島) 등 10개 항로가 열려 있다. 평택·군산에서도 중국을 오가는 6개 카페리 항로가 개설됐다. 지난해 16개 한중 카페리 항로를 이용한 승객은 152만4천 명에 이른다.

인천~웨이하이 카페리는 그동안 총 316만 명의 승객과 98만 개의 컨테이너를 날랐다.

1996년부터 웨이하이에 공장을 운영 중인 김중유 웨이하이한국인회 회장은 “중국에서 2008년 신노동법이 발효된 이후 인건비 상승으로 노동집약형 업종은 인건비가 싼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로 이전해 현재는 700여 개 기업과 1만8천여 명의 교민이 있다”고 했다. [▶](#)

독립운동의 요람... 연해주 '신한촌'의 어제와 오늘

러시아 공식 문서에 따르면 1864년 한민족이 연해주(沿海州·프리모르스키)의 지신허(地新墟·치진헤) 마을로 이주해 살았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착취와 기근을 피해 두만강을 넘는 조선인은 해가 갈수록 늘어났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러시아의 동방정책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가 건설되자 이곳에 자리 잡았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어로 '동방을 지배하라'는 뜻이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해삼이 많이 난다고 해삼위(海蔘威)라고 불렀다.

1886년 400명, 1891년 840명 등으로 한인의 숫자가 늘어나자 시 당국은 1893년 도심 인근에 집단거주 구역을 설정했다. 러시아인은 이곳을 고려인촌이라는 뜻의 '카레이스카야 슬라보드카'라고 불렀고 한인들은 개척리(開拓里)로 명명했다. 1911년 5월 시 당국은 콜레라 창궐을 핑계로 이곳을 강제 철거해 기병대 숙소로 삼고 한인들을 북쪽으로 2km 떨어진 언덕으로 이주시켰다. 이곳이 새로운 한인촌이라는 뜻의 신한촌(新韓村)이다. 가옥은 대개 12평(약 40m²) 남짓한 목조였으며 양철지붕에 유리창을 내고 온돌을 깔았다.

그해 8월까지 1천500명 정도가 옮겨 살았고 1915년에는 주민이 1만 명에 이르렀다. 특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으려는 우국지사들이 속속 집결해 항일독립운동의 요람이 됐다. 신한촌 한인들은 1914년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도 조직했다. 이상설과 이동휘가 각각 정·부통령 격의 정도령(正道領)과 부도령(副道領)을 맡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독립운동의 요람 '신한촌'을 기리는 기념탑.

독립운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해 1차대전 터지자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 당국이 권업회와 광복군정부를 강제로 해산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나자 독립군 상당수는 러시아혁명군(적군·赤軍)에 가담, 반혁명연합군 백군(白軍)의 일원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한 일본군과 싸웠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군 세력이 속속 연해주에 집결하자 1920년 4월 일본군은 신한촌을 급습해 한인 300여 명을 학살하고 방화와 파괴를 저질렀다. 이른바 '4월 참변(신한촌 참변)'이다. 이어 1921년 6월 인근에서 일어난 '자유(스보보드니)시 참변', 소비에트연방(소련) 수립 후 독립군에 대한 당국의 탄압 등으로 신한촌의 항일운동 열기는 급격히 약화됐다.

그래도 신한촌으로 몰려드는 한인은 더욱 늘어나 주변의 황무지들을 개간해 옥토로 바뀌어갔다. 신한촌에는 한글신문 '선봉(先鋒·고려일보 전신)' 등이 발간됐고 고려극장도 창단됐다. 그러나 1937년 스탈린정권이 이 일대의 고려인을 모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켜 신한촌은 뿌리째 뽑히고 말았다.

“

고려인 제2의 고향...
1937년까지 번성하다
흔적 사라져

”

1999년 3·1운동 80주년을 맞아 해외한민족연구소가 국민 후원금을 모아 그해 8월 15일 세운 기념비만이 당시 역사의 편린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첫 한인촌인 개척리의 사정은 이보다 더 안타깝다. 대동공보, 해조신문 등의 신문이 발간되던 자리는 블라디보스토크 최고의 변화가로 탈바꿈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위치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창**

재외동포문학상 단편소설 부문 대상에 이권재 ‘아버지의 초원’

시 강원희 ‘별자리를 따라간 이중섭’, 수필 백동흙 ‘깁~니~프!’

재외동포재단은 ‘제19회 재외동포문학상’ 단편소설 부문 대상에 재미동포 이권재 씨의 ‘아버지의 초원’을 선정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재단은 시·단편소설·수필·청소년 부문에서 응모한 1천520편을 심사해 당선작을 발표했다.

시 부문은 재미동포 강원희 씨의 ‘별자리를 따라간 이중섭’, 수필은 뉴질랜드에서 응모한 백동흙 씨의 ‘깁~니~프!’(깟읷의 원어민 발음)가 각각 대상에 뽑혔다. 청소년 글짓기 부문에서는 강동헌 군(중고등부문, 인도네시아)의 ‘작은 천사들의 미소’와 김신영 양(초등부문, 태국)의 ‘스물넷 꾸러미 선물’이 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국어 작문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한글학교 특별상’은 태국 치앙마이 한글학교와 호주 새순 한글학교가 차지했다. 태국 치앙마이 한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학교로 뽑혔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상과 가작 등 총 30명의 수상자에 대한



2017 재외동포문학상 심사에는 신경림·신달자 시인, 최인석, 구효서 소설가 등 1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시상식은 거주국 관할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글학교 2개교에는 상패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경림 시인, 정호승 시인, 최인석, 구효서 소설가 등 13명의 심사위원은 “모국과 가족을 떠나 오랜 시간 살아온 이야기와 낯선 땅에서 뿌리내리는 과정들이 한국적 정서와 함께 녹아든 작품이 많았다”며 “모국과 모국어에

대한 향수와 갈망이 느껴져 가슴 찡한 감동을 했다”고 평가했다.

신달자 시인은 “점차 수준 높은 작품의 응모가 늘고 있다”며 “타지에 살면서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우리말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정서적 감정과 언어를 잊지 않은 응모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심사 소감을 말했다.

구효서 소설가는 “재외동포로서의 경험과 이야기를 단순히 풀어내는 것을 넘어 소설적 절제미를 갖춘 작품이 많이 눈에 띄었다”고 분석했고, 복거일 소설가는 “동포문학은 디아스포라라는 특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특징이 있어서 한국 문학에도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5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대상에 미국 김창중 씨

재외동포재단은 ‘제5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대상에 재미동포 김창중 씨의 작품 ‘어린이 민속 큰잔치’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미국 뉴욕에서 매년 5월 열리는 어린이 민속 큰잔치 행사 중 우리나라 어린이와 외국 어린이가 함께 공굴리기는 모습을 앵글에 담았다.

김녕만 월간사진예술 고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티나 대표, 황종건 포토데스크 대표심사위원 등 3명의 심사위원은 “이 사진은 밝고 건강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재외동포의 희망을 담아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우수상은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거주국 현지인들과 당당하게 걷는 재외동포들의 모습을 담은 재미동포 최병환 씨의 ‘태극기 휘날리며’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공모전의 취지에 맞게 과장 없이 자연스러운 재외동포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들이 많아지고 참가국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진 속 등장인물들이 이민 3~4세대로

젊어지고 재외동포 가정의 정착 이야기를 담았다는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남다르다"고 총평했다.

재단은 이들 작품과 입선 11점 등을 포함해 90여 점의 응모작품을 9월 19~2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시한다.

재단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재외동포 사회를 국내에 소개하고,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제5회 공모전에는 26개국에서 100여 명의 동포가 406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재외동포 김창중 씨의 '어린이 민속 큰잔치'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들 남도서 역사문화 체험

재단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호남 일대에서 '2017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역사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재단 초청으로 한국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52개 나라 200여 명의 재외동포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장학생 서로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오목대,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광주 5.18 민주광장, 담양 죽녹원 등을 방문하고, '생명의 물줄기 그리고 우리 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는 역할극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서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열어 평화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거주국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선후배간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교류의 시간도



재외동포재단 초청 역사문화체험에 참여한 장학생들은 9월 2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가졌다. 행사기간 국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지역 출신 학생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지역 리더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지역리더상'도 시상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모국의 역사문화체험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재외동포 우수 인재들이 모국에서의 공부를 잘 마치고 선후배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미래 동포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뉴욕한인봉사센터 리모델링에 30만달러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미국 뉴욕의 뉴욕한인봉사센터(회장 김광석)의 리모델링을 도우려고 3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1974년에 설립된 뉴욕한인봉사센터는 한인 이주민의 직업훈련, 이민자교육,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법률 상담,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다. 2016년 2월 뉴욕 퀸스 베이사이드에 있는 현재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300만 달러 중 150만 달러를 한인사회가 모금하면 나머지 절반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센터는 재단 지원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125만 달러를 모았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25만 달러를 채울 계획이다.

대지 1천500평에 건물 면적 1천 평인 센터는 최대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을 비롯해 200여 명이 활동할 수 있는 중소 규모의 홀을 갖추고 있다. 리모델링 후에는 한인 단체의 각종 모임이나 강연 장소로 쓰이는 '한인 사랑방' 역할도 하게 된다.

지난 7월 27일 센터를 방문해 감사패를 받은 주철기 이사장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해온 센터가 리모델링을 통해 종합복지회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뉴욕한인봉사센터를 방문한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사진 좌로부터 세 번째)은 7월 27일 뉴욕한인봉사센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담백하고 시원한 전통서민음식 ‘평양냉면’

겨울철 이북음식에서 사계절 전국 음식으로 진화

냉면은 설령탕과 더불어 대표적 전통서민음식으로 꼽힌다. 그중 평양냉면은 오랜 역사 속에서 신분과 계층을 떠나 두루 사랑받아왔다. 겨울 음식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사계절 음식이 됐다.

평양냉면의 주재료는 메밀이지만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메밀이 아닌 전분과 밀가루가 재료였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소바의 영향을 받아 메밀이 대거 들어가게 됐다는 것. 메밀이 중심이 되는 지금의 평양냉면은 옛날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 역시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이자 진화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북녘땅에서 유래했어도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은 식재료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평양냉면은 메밀을 많이 넣고 삶은 국수를 차가운 동치미국이나 육수로 만 장국냉면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에 함흥냉면은 감자 등의 전분을 넣고 뽕 국수를 매운 양념장으로 무치고 새빨갭게 양념한 흥어회를 얹은 비빔냉면이 일반적이다. 부드러운 면발의 평양냉면이 깔끔하다면 면발이 쫄깃한 함흥냉면은 맛이 새콤하다고 하겠다.

평양냉면을 구성하는 양대 요소는 육수와 면이다. 소고기를 커다란 솥에 넣고 푹 끓여 우려낸 육수에 메밀을 주재료로 해 뽑아낸 국수 무치를 넣는다. 물론 육수와 면을 만드는 방법은



평양냉면은 시원한 물냉면(왼쪽)이 주류를 이루나 매콤한 비빔냉면도 그 나름의 매력에 있다.

식당마다 조금씩 달라 개성 있는 미감을 선사한다. 육수에 동치미 국물을 넣는 식당도 있고 그러지 않는 식당도 있다. 요리법은 먼저 육수 내기다. 황소 고기의 각 부위를 골고루 커다란 솥에 넣고 10시간 동안 푹 끓여낸다. 가급적 자연에서 자란 시골 수소를 사용하기에 풍부한 영양과 담백한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만들어진 육수는 일단 냉동창고에 보관한다.

다음은 국수 만들기. 메밀을 65%, 고구마 전분을 35% 분량으로 섞어 만든 반죽을 냉면 기계에 넣으면 가늘고 하얀 국수가 순식간에 뽑혀 나온다. 이를 펄펄 끓는 대형 면수(麵水) 가마솥에 넣어 2~3분 동안 익힌 뒤 건져내 찬물에 넣고 휘휘 저어 행군다. 그리고 이를 얼음물에 다시 담가 차갑게 한 뒤 손으로 돌돌 말면 국수말이가 완성된다.

이렇게 공급된 육수와 면을 토대로 육수와 면 위에 무, 오이, 배, 계란, 사태 같은 고명을 살짝 올린 뒤 반찬과 함께 손님의 밥상으로 내간다. 냉면을 먹을 때는 먼저 물컵에 담긴 따끈한 육수를 두어 모금 들이켜 속을 달랜다. 소의 잡뼈와 사골을 삶아 우려낸 이 육수는 냉면 맛을 극대화하는 마중물 구실을 해준다고 하겠다. 그런 다음 국수에 앞서 계란 고명을 먹으면 입안의 잡맛을 미리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1~3. 국수 만들기. 메밀과 전분을 넣어 만든 반죽을 냉면 기계에 넣으면 가늘고 하얀 국수가 뽑혀 나온다. 3번 사진은 얼음물에 담근 뒤 뭉쳐놓은 국수말이.



4

4. 평양냉면.

5. 얇게 썰어진 사태를 양념에 찍으면 더욱 먹음직해 보인다.



5

이제 냉면을 본격적으로 먹을 차례. 국수 뭉치를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 육수에 면발이 충분히 풀리게 한 뒤 무김치 등과 함께 넣으면 후루루 순식간에 입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쾌감을 만끽하게 된다. 이때 면발은 가위 등으로 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좋다. 취향에 따라 겨자, 간장, 식초 등을 추가할 수도 있으나 이들 양념의 첨가 없이 그냥 먹었을 때 순수한 냉면의 맛을 한껏 느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마포의 을밀대를 비롯해 중구의 남포면옥, 평양면옥, 필동면옥, 우래옥, 을지면옥 등 수십 년 전통의 평양냉면 식당들이 성업 중이다. [\[참\]](#)

서울시(홈페이지) 소개 신(新) 관광지 2곳

♣ 서울스카이

서울에는 높은 빌딩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저 멀리 우뚝 솟은 빌딩 하나가 눈에 띈다.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서울의 전경을 보고 싶거나 야경을 보려면 남산타워를 찾곤 했지만 이제 새로 생긴 서울스카이에서 그보다 더 아찔하고 황홀한 서울의 밤을 즐겨보자.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서울스카이. 아름다운 색감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미디어 아트가 곳곳에서 전시된다. 매표소부터 122층에 도착하기까지 한국의 동양미를 담은 미디어아트가 눈을 즐겁게 한다. 서울스카이는 한국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3위로 높다. 서울 뷰를 360도로 즐길 수 있으며,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점점 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00. 117~123층

▶ 가는 길: 2호선, 8호선 잠실역

▶ 이용시간: 매일 09:30~23:00

♣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약 850평 규모로 5만여 권의 책들이 있다. 2층까지 꽉 차있는 높은 책장이 멋스럽다. 이곳에서 책을 읽어도,



읽지 않아도 좋다. 그냥 잠깐 둘러만 봐도 좋고,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노트북 작업을 해도 좋다. 도서관 한쪽에는 편의점도 있어 간단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니 여름피서지로 제격이다. 볼거리도 풍성하고 책 이상의 즐거움이 있는 별마당 도서관. 명사 초청 강연이나 음악회를 열어 지식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6월 한 달에만 20여 명의 명사가 별마당 도서관을 찾아 강연했으니 명사들의 마당이라 할 만하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센트럴플라자 중앙 B1~1F)

▶ 가는 길: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

▶ 이용시간: 10:00~22:00(연중무휴)

▶ 냉면음식점 정보: 을밀대(02-717-1922)

오장동흥남집(02-2266-0735)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에 참여하세요”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은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 만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과정을 수강하고 이수증을 받게 되면 재외동포재단이 인증한 교사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증과정은 각 25분 분량의 동영상 강의로 75차시로 크게 2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수진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온라인 교육입니다.

한글학교 교사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밖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한글학교 교사 맞춤형 온라인 연수과정 이수자를 위한 단축과정도 별도 운영합니다.

수강 신청 안내



스터디코리안
온라인 수강 신청



스터디코리안 접속 <http://study.korean.net>
(개인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학교 등록 및 수강 신청



개강 알림
(수강 신청 시 알려 주신 이메일로 개강 알림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수강하기

수강 일정

과정 유형	대상	단계	수강 일정			
			7/17~8/27	8/28~10/8	10/9~11/19	11/20~12/10
정규과정	모든 한글학교 교사	1단계	1기	2기	3기	4기
		2단계	1기		2기	
단축과정A	한글학교 교사 맞춤형 온라인 연수과정 이수자	1단계	1기	2기	3기	4기
		2단계	1기	2기	3기	4기
단축과정B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1단계	1기	2기	3기	4기
		2단계	1기	2기	3기	4기

* 단축과정 신청자는 추후 관련 증빙서류(사본)를 제출하여 주십시오.(문의메일: teacher@okf.or.kr)

* 단축과정 신청 대상자도 정규과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단축과정 수강자도 면제된 과목의 청강이 가능합니다.

- 이수 안내**
- 이수기준 : 전 강의 80% 이상을 수강하고 평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이수증 발급 : 각 단계별 수강 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문의 사항**
-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운영 지원(teacher@okf.or.kr)
 -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kostcc를 검색하세요.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2017. 9.26 ~ 29 | 롯데호텔월드



주최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